

## 도시재생이 요구하는 혁신의 시도는 언제 완성될까? -

### 런던 브릭레인 (Brick Lane)

런던시에서 최근 몇년간 젊은이들이 패션과 예술을 찾아 많이 몰리는 가장 핫(hot)한 곳을 꼽을 때면 브릭레인(Brick Lane)이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런던 동쪽 리버풀 스트리트역과 올게이트 역 사이를 관통하는 거리가 브릭레인이다. 대영제국의 화려한 전리품들로 가득한 런던 시내 관광명소와는 달리 이 지역은 런던 근대와 현대사를 만든 이민자들과 젊은 예술인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브릭레인을 시작으로 형성된 독특한 예술과 패션의 문화는 2000년대 이후로 점차 확산되어 이곳 주변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많은 미디어와 연구문헌에서 브릭레인, 이스트앤드, 쇼디치, 해크니, 달스턴, 혹스턴, 달스턴 등이 런던 동쪽의 가장 핫한 장소로 소개되고 있다. 이곳들은 모두 브릭레인의 주변지역이다. 패션과 예술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봄직한 브릭레인. 이곳의 역사와 변화를 살펴보면 런던과 같은 대도시 낙후지역의 재생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혁신은 무엇이며, 그러한 혁신의 시도는 언제 완성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다시 곱씹어보게한다.

그림 1. 브릭레인 길거리 낙서 아트 (사진출처: <https://goo.gl/k2FyZl>)





그림 2. 브릭레인 거리 사인 (사진 출처: <https://goo.gl/hH8umg>)

브릭레인을 가기위해 리버풀 스트리트역을 나오면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올드) 스피터필즈 마켓이 있다. 마켓이 끝나는 지점에서 브릭레인이 시작된다. 브릭레인은 오랫동안 방글라데시라고도 **불린다**. 1970년대 이후 방글라데시의 이민족이 대거 자리를 잡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브릭레인의 뒷쪽은 런던의 자본이 몰려드는 가장 유명한 금융가인 시티지역이다. 스피터필즈 마켓이 생긴 1600년대부터 그곳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이 자리를 잡았다. 브릭레인을 중심으로한 주변 지역은 오랫동안 유럽대륙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장사와 대출업을 하던 곳이다. 1600년대부터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 유대인, 아이리쉬, 러시아인, 폴란드인 등이 건너와 자리를 잡았고,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전후 복구를 위해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등에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대도시내 다양한 이민자들의 정착지라는 공간은 본국에서의 빈곤,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피해 피난온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삶의 터전을 뜻한다. 특히 산업혁명 후의 브릭레인은 셜록홈즈(Sherlock Holmes)와 같은 범죄 추리소설과 유명한 화가인 워터 시커트(Walter Sickert)가 범죄현장을 상상하며 표현한 그림 속 배경의 장소였다. 당시에는 인간의 감성보다는 이성과 결과가 중시되던 시대였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신의 경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혁명을 통한 기계화와 문명화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가져왔고 이는 주로 범죄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셜록홈즈의 추리소설과 워터 시커트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인물인 잭 더리퍼(Jack the Ripper)는 살인마였으며, 이 살인마의 활동배경은 바로 브릭레인을 포함하는 런던 동부지역이다.

### 브릭레인의 새로움 하나 - 전후 현대사의 이민자 커뮤니티가 만든 새로운 문화

1600년대 영국은 인도에 동인도회사를 세우고 인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 무역활동을 벌였다.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의 영국 이주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영국으로 이주하는 방글라데시인들은 조금씩 늘어났다. 이들의 영국 이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당시 브릭레인은 세계대전 이후 폭격으로 많은 주택과 상점들이

젓덩이로 변한 후 런던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층형 임대주택이 많이 건립되었다. 싼 가격에 방을 구할 수 있었던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은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정착은 주변에 방글라데시 고유의 문화 장소와 상권을 발전시키며 브릭레인은 방글라타운으로 진화하였다.



그림 3. 브릭레인의 커리 레스토랑들 (사진출처: <https://goo.gl/6hU7WZ>)

방글라타운은 1990년대 후반부터 런던 최고의 “커리거리”라는 국제적 명칭을 갖기 시작했다. 1997년 브릭레인의 커리 레스토랑 숫자는 6곳이었고, 이것이 점차 증가하여 지금은 60여곳이 넘는다. 매년 2주간 지속되는 국제 커리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다. 지금 브릭레인 거주자와 상인 중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은 방글라데시인들이지만 그보다 앞선 먼 옛날에는 프랑스의 위그교도들, 세계대전을 피해 피난온 유대인들 등이 가장 규모가 큰 이민자 커뮤니티를 형성했었다. 이들 이민자들이 이곳에 쉽게 정착하면서 세를 불렀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이 기댈 수 있는 종교기관들이 일찍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커리 레스토랑 사이사이에는 방글라데시 이민자 연합회와 주민센터, 무슬림 사원과 함께 그보다 이전에 이주한 유대인들의 베이글 베이커리, 유대교 사원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 올드 스피터필즈 마켓 전경(사진출처: <https://goo.gl/jNzcvX>)





그림 4. 올드 스피터필즈 마켓내 레스토랑 (사진출처: <http://goo.gl/e6NMIm>)



브릭레인 초입에 위치한 스피터필즈 마켓은 오랫동안 야채와 채소를 파는 시장이었었다. 장사에 능한 유태인들이 주로 이곳에 터를 잡았었다. 런던 인구의 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많아지고 스피터필즈 마켓을 찾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면서 마켓은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1년 야채, 과일, 먹거리를 파는 마켓의 점포들을 모두 런던 동쪽 외곽인 레이트너로 옮겼다.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졌던 마켓의 노후된 상가건물은 모두 헐고,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새로운 상가건물과 중앙 광장을 만들어 올드 스피터필즈 마켓이란 이름으로 마켓을 새로 열었다. 새로 개장한 올드 스피터필즈 마켓은 바로 옆에 위치한 시티지역에서 일하는 부유한 금융인들을 대상으로한 부티크 상점과 독립 디자이너 상점들이 입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피터필즈 마켓의 변신은 이 지역의 성격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보다 부유한 백인 중심의 커뮤니티가 올드 스피터필즈 마켓을 찾기 시작하였다. 스피터필즈 마켓을 경계선으로 절대 넘어오지 않던 시티 종사자들이 옆 동네를 찾기 시작했다.



스피터필즈 마켓의 변신을 보며 관찰구인 타워 햄릿구는 인접한 브릭레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앵커(Anchor) 공간을 구상하였다. 앵커 공간이란 한 지역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곳에 위치한 사업장 및 다양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발굴해내고 육성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브릭레인이 끝나는 지점의 코너를 돌면 위치한 화이트채플(Whitechapel) 갤러리가 그러한 공간이다.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1901년 빅토리아 시대에 지역의 빈곤과 무지를 이기는 방안으로 예술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장소이다. 100년도 더 오래전에 영국의 지배층은 낙후지역의 재생을 위한 방안으로 예술과 문화의 힘을 믿었다. 이후 이곳은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를 이곳을 찾는 외부 이방인에게 알리고, 외부의 문화를 이곳 지역민에게 전달해주는 앵커 공간의 역할을 해왔다.

그림 5. 리치믹스 전경 (사진출처: <https://goo.gl/FcgEvq>)



화이트채플 갤러리가 빅토리아시대에 만들어진 앵커 공간이라면 리치믹스(Rich Mix) 문화 공간은 이 지역의 다양한 이민자문화를 하나의 런던문화로 체화해내기 위해 10년전에 만들어졌다. 방글라데시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방글라데시인들이 하나의 섬이 되는 것을 타워햄릿 보로우는 경계하였다. 리치믹스라는 공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이 방글라데시 문화와 섞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장소로 기획되었다. 리치믹스의 개장은 방글라데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증가로 1990년대 중반에 방글라데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타워햄릿 구의원을 배출하면서 시작된 브릭레인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리치믹스는 브릭레인 이민자들의 문화를 젊은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재해석해내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벌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리치믹스와 화이트채플 갤러리를 적극 활용하면서 브릭레인의 커리거리도 “방글러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화하면서 더럽고, 가난한 이민자들이 몰리는 커리거리를 새로운 이미문화를 만끽하는 독특한 문화의 거리로 재창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브릭레인의 새로움 둘 - 젊은 예술인들이 창조해낸 패션, 아트, 디지털 미디어 문화**

스피터필즈, 화이트채플, 리치믹스와 같은 앵커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민자들의 문화가 브릭레인 거리의 자생의 문화가 만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브릭레인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독특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브릭레인이 갖고있던 범죄와 빈곤의 명성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시작에 불을 본격적으로 당긴 것은 브릭레인에 자리잡기 시작한 예술가들이다.

역사적으로보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빈곤한 이민자들의 공간인 브릭레인은 쉽게 범죄집단이 자리를 잡았다. 1990년대까지도 이곳은 높은 범죄율로 런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값싼 부동산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산업혁명시대에 많이 생겨났던 실크, 단추, 봉제 공장 등이 문을 닫아 비교적 공간이 큰 공장과 창고 등이 버려진채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에 가난하지만 젊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며 공간을 점거하고 그들의 예술 활동을 시작하였다. 버려진 공간에 주인의 허락없이 기숙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보수되지 못한채 버려진 건물 벽에 자유로이 자신들의 그림을 그려넣은 그라피티(Graffiti)를 여기저기에 새겨놓았다. 실제로 브릭레인에 가면 곧 허물어질 것 같은 건물들에 재미있고 기발한 설치 작품들을 쉽게 발견한다. 자칫하면 지루하게만 보일 수 있는 건물들도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단편적으로 이어지던 예술가들의 활동은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The Old Truman Brewery)라는 공간이 개장되면서 본격적인 젊은 예술가들의 집단적인 이주와 활동이 시작되었다.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는 1600년대에 만들어진 맥주 양조장 건물을 재활용한 문화복합공간이다. 1980년대 후반 양조장의 기능은 중단되었고, 공간은 더 이상 쓰이지 못하고 버려졌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옷감원단 무역업을 하던 유대인 가족은 1995년에 이 양조장을 매입하였다. 매입당시 공간의 사용 목적은 유럽내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패션상품을 만들어내는 허브였다.





그림 6.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 전경 (사진출처: <http://goo.gl/Y5wkDt>)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는 총 10 에이커의 양조장 공간을 재디자인하여 사무실 공간, 각종 전시와 이벤트 공간, 바, 카페 등을 만들었다. 시중에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가 아닌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패션 디자이너와 예술가들만을 입주자로 받으면서, 전시와 이벤트 공간에서는 기존에 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작품 전시회와 이벤트가 열렸다. 예를들어 입주업체의 하나인 기관인 더 프리레인지(The Free Range)는 2001년부터 매년 예술대 재학생이거나 각 졸업한 신진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유럽 최대의 아트 페스티벌이 되었다. 트루먼 브루어리의 명성과 다양한 젊은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스튜디오들이 생겨나자 다양한 창조 직업군의 프로페셔널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영화, 사진, 건축가, 디자이너, 뮤지션, 미디어 종사자 등이 이곳에 사무실을 갖기 시작했다.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있는 영국의 예술가인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또한 이곳에 작업실을 두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터키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녀로서 입주자로서의 동질감을 느꼈고 다양성에 기반한 이 지역에 애착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작품들은 비주류가 가질 수 있는 브릭레인만의 매력을 선보인다. 소수를 위한 고급 예술품이 아닌, 아트시장에선 비주류이지만 보다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큰 예술문화가 트루먼 브루어리와 같은 공간과 프리 레인지가 기획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그림 7. 브릭레인의 빈티지 상점 (사진출처: <https://goo.gl/yJOEpH>)



이러한 비주류 예술성향은 이 지역에 새로운 패션상권을 만들어냈다. 브릭레인의 끝자락과 그 주변지역에는 철지난 옷들을 재활용해서 팔고 있는 빈티지 (Vintage) 숍들이 즐비해있다. 아주 옛날 할머니들이 입었을 듯한 낡은 옷들이 싼값에 재활용되고 오래된 골동품들 또한 이곳저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영국이 빈티지의 원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비주류의 동향은 또다른 개성과 색깔을 낳았고, 최근에는 박스파크(Box Park)라는 공터에 컨테이너를 얹어 만들어진 가게들도 생겼다. 지역의 뚜렷한 개성이 젊은이들의 상징적인 장소가이 되며 조금 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상권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미 이름있는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 되며 더 큰 상권으로 발전되었다.

현재의 브릭레인은 골목 구석구석을 가도 똑같거나 지루한 곳이 없다. 다양한 문화와 개성이 어우러진 현재의 이곳은 어두운 영국의 역사마저 즐길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매김을 한 듯하다. 낙후된 지역이 하나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되기까지 - 현재의 브릭레인은 다양한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접근과 예술 등이 조합되어 하나의 독특한 장소성을 만들어냈다.

### 브릭레인의 고민 하나 - 독립된 커뮤니티간의 단절

브릭레인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고민을 만들고 있다. 범주의 온상이라는 옛오명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오랜기간동안 브릭레인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빈곤은 어떠한가? 힙스터와 여피들이



몰려들어 그들이 연 지갑에서 흘러나온 지폐들은 이곳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했는가? 살인마 잭더리퍼가 끔직한 범죄를 저질렀던 시대에서 100 여년이 지난 현재 브릭레인에 살고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한 이민자들이다. 브릭레인이 위치한 타워햄릿구의 전체 구민 약 25 만명 중 절반이 흑인과 소수민족이며, 구내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갯수가 110 개에 달한다. 특히 스피터필즈 마켓과 브릭레인에는 약 9,000 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고, 약 전체주민의 58%가 방글라데시 이민자이고, 22%만이 영국에서 태어난 백인이다. 이들 영국에서 태어난 백인 중에는 전쟁을 피해 이주해온 유대인의 후손들이 많다. 브릭레인이 위치한 타워 햄릿구는 런던의 32 개의 구중 실업률이 두번째로 높은 보로우이며,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구이기도하다.

이러한 통계 및 브릭레인과 관련된 여타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나듯, 2000 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브릭레인의 새로 변화는 서로다른 커뮤니티들의 단절되고 독립된 변화다. 방글라데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변화, 젊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 커뮤니티의 새로운 유입과 변화, 주변 시티 지역의 자본과 부유한 커뮤니티의 유입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커뮤니티들이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거의 같은 지역 공간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커뮤니티간의 활발한 교류나 통합 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Nesta 연구보고서(2010)에 의하면 이들이 연구활동 중 인터뷰한 다양한 브릭레인 커뮤니티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 다른 커뮤니티간의 긴장감을 언급하였다. 실례로 방글라데시 커리거리의 레스토랑 주인들은 바로 옆 트루먼 브루어리의 오픈과 성공이 커리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의 수를 늘렸을지는 모르지만, 젊은 예술가들의 나이트클럽 문화 등으로 인한 소음을 불평하며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또한 새로 개장한 올드 스피터필즈 마켓의 새로운 일자리들 - 주로 고급 브랜드의 레스토랑과 바는 커리거리의 방글라데시인의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채용절차를 따르게되어 정작 이곳의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서로 다른 커뮤니티간의 단절은 특정한 인종주의나 계급간의 충돌없이 2000 년대 후반 자신들만의 고유의 특질을 잘 살려나가면서 평화로운 공존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커뮤니티가 서로 섞이지 않고 한 공간에서 독립적인 확장을 한 것이 이곳의 매력이며,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전세계인들이 찾는 독특한 공간이 된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독특함속에 존재하는 자본, 인종, 계급의 차이가 어느 한 커뮤니티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른다면, 이러한 공존은 빠르게 깨지고 브릭레인이 갖는 지금의 명성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 이들의 공존은 불안한 동거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 브릭레인의 고민 둘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떠나는 이들

서로 다른 커뮤니티의 공존에 위협을 가하는 신호들이 최근들어 감지되고 있다. 브릭레인 독특함의 명성은 전세계의 수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창조적이고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낸 브릭레인의 매력은 이민자들과 예술가들 활동공간의 임대료를 높이고 있다. 바로 옆블럭에 위치한 시티지역의 넘쳐나는 자본은 브릭레인을 둘러싸고 고급 아파트와 오피스블럭을 짓는데 쓰여지고 있다. 브릭레인의 끝이 만나는 곳에 있는 화이트채플과 올게이트역 사이를 걸어보면 이들 고층빌딩들의 건설소음으로 머리가 윙윙거린다. 실제 런던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장

심각히 드러나고 있는 곳은 바로 브릭레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이다. 실제 2015년 9월에는 이곳에서 반젠트리피케이션 시위가 크게 열렸다. 런던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논하는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등의 연구 대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에 쏟아지는 브릭레인을 소개하는 글들은 런던 이스트엔드 독특한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을 칭송하기 바쁘다. 그러나 브릭레인을 축하하는 노래와 파티는 이제 거두어야할지도 모른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과는 이미 주변에 하루가 다르게 새로 만들어지는 럭셔리 아파트들의 대열로 쉽게 눈에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브릭레인을 포함한 주변지역 전부의 땅값과 상점 및 주택의 임대료를 올려놓고 있다. 실제로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처럼 신진 예술작가의 창조적 허브라는 목적을 갖고 개장한 공간은 여전히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적절한 가격에 작업공간과 전시공간을 제공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가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는 어렵다.

### 다시 예술과 커뮤니티의 힘으로..

브릭레인은 스피터필즈 마켓이 시작되었던 1600년대부터 고통받고 빈곤한 이들이 터를 닦은 곳이다. 400여년의 역사동안 이들은 힘들어했고, 매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거기엔 하나둘 모여든 노점상들이 모여 영국 왕가가 인증하는 시장을 만들어냈고, 본국의 정치와 종교의 압박을 받고 이주한 유럽인들은 그들만의 작업장과 사업장을 만들어냈고, 전후 폐허가 된 곳에 방글라데시의 문화와 맛을 알리는 방글라타운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의 혁신은 여전히 범죄의 온상이던 곳에 젊은 예술가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영국의 차세대 예술가들의 주요 활동공간이 되었다.

그림 8: 쇼디치 개발 신탁 소유 워터하우스 건물 전경 (사진출처: <http://goo.gl/vvfi0T>)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브릭레인이라는 공간에 세계적인 명성을 주어졌지만 밀려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는 또다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낙후된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많은 전략과 믿음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 공간에 새로움을 불어넣은 예술가들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에 반기를 드는 예술가들도 존재한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인 더 레드 룸(The Red Room)은 2005 년 혹스톤 스토리(Hoxton Story)라는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브릭레인 바로 옆에 위치한 혹스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곳을 활동무대로 작업을 진행하는 예술가, 크고 작은 상점의 주인들에게 지역의 변화에서 느끼는 자신들의 감정을 연기로 전달하고, 극의 맨 마지막엔 그러한 변화를 우려하는 이들이 모여 혹스톤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이 공연은 혹스톤의 변화의 미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청중에게 던졌다.

혹스톤 스토리가 공연되었던 10 여년전 젠트리피케이션의 기운이 시작될 때 브릭레인과 멀지않은 쇼디치에서는 쇼디치 개발 신탁(Shoreditch Development Trust: SDT)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않은 곳에는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Hackney Development Co-operative:HCD)이 활동하고 있다. 이 두 곳 모두 주변지역의 땅과 건물들을 매입하고 공동체 자산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에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무공간, 작업장, 사업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이들 공간의 입주자들에게는 비즈니스 지원을 제공한다. 두곳 모두 기업의 운영을 위한 이사회에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자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의 경우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럭셔리 아파트와 저렴한 작업공간을 복합제공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기존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커뮤니티 자산 취득 방법이다. 럭셔리 아파트의 임대료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한 후 그 자금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작업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림 9. 해크니개발협동조합 소유 건물인 브란베리 스트리트 워킹유닛과 달스턴 컬처 하우스 전경  
(사진 출처: <http://goo.gl/5tIV14>)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내는 종착역은 꼭 젠트리피케이션이어야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과는 늘 초호화 아파트와 고급 브랜드 프렌차이즈 식당과 카페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틀림을 보여주는 커뮤니티들의 시도가 어렵지만 이처럼 용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런던 곳곳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시도되고 있고, 캠페인의 차원보다 한 발짝 더 들어간 커뮤니티 자산 매입과 운영이 시도되고 있다. 혁신이란 고질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절절히 요구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엇이 있기때문에 혁신을 이야기한다. 혁신의 시작은 따라서 태생적으로 비주류이다. 흑스톤 스토리, SDT, HCD 모두 런던의 거대한 부동산 개발시장의 논법에서는 비주류이며 새로운 시도이다.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커뮤니티간의 단절이라는 문제는 늘 시도해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뿌리깊은 문제이다.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그래서 새로와야한다.

도시재생은 오랫동안 동안 많은 이들의 경험과 창조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과정의 작업이다. 재생된 공간이 새로운 삶의 질을 보장한다고 느끼는 순간 또다른 막다른 곳이 보인다.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진중하게 아직은 확산되지 못했지만 용감한 시도들을 깊은 고민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용감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주류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이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시도해보고, 변형해보고, 또 다시 시도해보기를 수없이 반복해야한다. 사회혁신은 하나의 반짝이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한다. 트루먼 브루어리가 만들어낸 브릭레인의 예술적 생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다시 낳고있다. 새로운 문제는 또 다른 시도를 요구한다. 사회혁신이란 이처럼 마침표가 없는 지속적인 고민과 용감한 시도의 연속이다. 새로운

시도는 과거에 기반한 배움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한다. “혁신”이란 레서피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는 “멈춤없음”이다.

## 참고자료

조선일보 온라인 (2015) “전 세계 트렌드가 궁금하면 런던의 ‘쇼디치’를 보라” , 2015 년 7 월 16 일 입력, 2016 년 5 월 1 일 참조, <http://goo.gl/oclcU4>

조선일보 온라인 (2016) “런던 대표 슬럼가였던 ‘해크니’ … 10 년간 가장 낮은 범죄율 유지한 비결은”, 2016 년 1 월 26 일 입력, 2016 년 5 월 1 일 참조, <http://goo.gl/1JHrkZ>

Bear, M., (2011) “Spitafields: Opportunity Through Regeneration”, London Gresham College Lecture, <http://goo.gl/idXJim>

Briata, P., (2007) “The Concept of “Culture” in Multi-Ethnic Areas Regeneration Policies: Common Views, Weaknesses, Experiences, Perspectives”, <http://goo.gl/u9F8ZV>

Colomb, C. (2009) “Gentrification and Community Empowerment in East London”, p.157~166, *Whose Urban Renaissanc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urban regeneration*, Routledge, 2009

Creative Cities (2016) “An artistic critique of gentrification: The Hoxton Story”, Creative City Alternatives’ 홈페이지, 2016 년 5 월 1 일 참조, <https://goo.gl/dsHDpO>

Dazed (2016) “This map marks all of London’s anti-gentrification campaigns”, <http://goo.gl/QX02Hp>

Guardian (2015), “Shoreditch Cereal Killer Café targeted in anti-gentrification protest”, 온라인 가디안 2015 년 9 월 27 일 입력, 2016 년 5 월 1 일 참조, <http://goo.gl/uRz50J>

Harris, A., (2012) “Art and gentrification: pursuing the urban pastoral in Hoxton, Lond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7 (2) pp. 226-241.

Nesta (2010) “Local Knowledge: Case studies of four innovative places”, Research Report March 2010, <http://www.nesta.org.uk/publications/local-knowledge>

Paterson, J. (2011) “Urban renewal and the creative industries - Beyera Hadley Travelling Scholarship 2011”, <http://goo.gl/0mQujs>

Public Spirit (2014) “Imagination and diversity in Tower Hamlets”, 온라인 퍼블릭 스피릿 2014 년 5 월 6 일 입력, 2016 년 5 월 1 일 참조, <http://goo.gl/6VBCwm>

글: 스프레드아이 대표 김정원 [jungwon@spreadi.org](mailto:jungwon@spreadi.org), 연구원 김보람 [b.kim@spreadi.org](mailto:b.kim@spreadi.org)

사회혁신 연구소 스프레드아이 소개: [www.spreadi.org](http://www.spreadi.org), [www.facebook.com/spreadi.org](http://www.facebook.com/spreadi.org)



스프레드아이는 런던에 위치한 사회혁신 연구소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에서 공통으로 관찰되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혁신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전세계의 혁신가들과 공유하며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사회혁신 실천가,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들을 위한 글로벌 지식공유, 교육, 연구조사, 다큐멘터리 제작, 네트워킹을 돕고있습니다. 스프레드아이의 국경을 뛰어넘는 소통과 관계 맺기는 분산, 공개, 참여와 같은 새로운 생각과 실천의 패러다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